

고객만족 통해 수출 판로 개척

한국기계포장기계대상 수출판매부문 수상



최 동 필

(주)우정테크 대표이사

“해외 수출을 통해 한국 포장기계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주)우정테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포장기계대상 수출판매부문에 선정된 최동필 (주)우정테크 대표이사는 1996년 회사를 설립, 자동화 설비제작, 설계 및 컨설팅을 중심으로 화장품 및 제약 분야의 자동 충전기 Robot Vision System을 이용한 자동화 관련기계를 제작하고 있으며 화장품분야의 각종 충전기 및 포장기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납품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한국의 기술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기술개발을 실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터키, 이탈리아, 일본 등 전세계 29여개국에 화장품에 관련된 충전기계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2001년 11월 일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면서 화장품 충전기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전사원이 하나가 되어 기술개발 및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처음 화장품 기계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무역에 대해서 배웠고 그 후 6년동안 직접 기계 제작에 참여하며 포장기계 업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기계를 제작하고 개발할 때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최동필 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이탈리아 업체에 기계를 수출했을 때 우정테크는 A/S를 위해 이탈리아를 6번 이상 방문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자사 기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등 'Good 서비스' 실천을 앞세워 회사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자사가 만든 제품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꾀하는 최동필 사장의 경영 방침이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최동필 사장의 남다른 영업관리로 우정테크는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이번 한국기계포장기계대상에서 수출판매부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

우정테크에서 생산하는 기계 중 가장 수출이 활발한 제품인 NEW LIPFIL-3AL (RUBBER MOULDING LIPSTICK)은 최초로 RUBBER 몰드를 이용한 성형방법을 개발하여 립스틱 성형공정에 변혁을 기했으며 (립스틱 표면에 음양각을 준 립스틱) 유럽 및 미국 화장품 회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립스틱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동필 사장은 "NEW LIPFIL-3AL 모델은 2004년에 개발된 기계로 META MOULDING 립스틱을 포함한 SOFT MOULDING(RUBBER MOULD)를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SOFT MOULD는 립스틱 표면을 더욱 광택이 나게 만들며 METAL MOULD 보다 안쪽이 더욱 부드러워기 때문에 충전할 때 핀홀을

없애기에 좋고 립스틱 모양을 원하는 모양이나 문양을 각인할 수 있으며 몰드 가격의 저렴하고 몰드 교체가 용이하다.

최 사장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해외 영업의 다각화를 실현하며 수출 실적을 쌓는 등 회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고속파우더 성형기 및 압축파우더 성형기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는 최 사장은 "포장기계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마케팅이 약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덧붙여 해외 마케팅을 위한 해외 전시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관련 단체는 이익 단체로서 업체의 정확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길 바라며 관련 전시회 비용을 보조해주거나 해외 마케팅을 위한 카탈로그 지원을 보조 해주는 등 업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장 단체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세련된' 회사 이미지를 위해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최 사장. 그는 국내 제품이 외국기업과 경쟁할 때 한 치의 부족함이 발견되지 않기 위해 '깨끗하고 책임감 있게' 모든 제품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는 (주)우정테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상의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는 (주)우정테크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